

世界人이 됩시다!

어느 TV방송은 칼럼으로 편성하여 “세계인이 됩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곰곰히 생각하고 되짚어볼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국가간의 무역장벽은 무너지고 개방화의 물결은 밀려들어오고 있으며,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최고, 일류가 아니면 살아 남을 수 없는 냉엄한 현실속에서 국제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세계인이 되기 위하여는 국가행정의 개방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다.

다양한 여건 변화와 세계화 추세에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행정의 폐쇄성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하며,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관련행정과 제도의 개방화 및 자율화는 가속되어야 한다.

이제 모든 제품은 국내보다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품질이 보장되고 상품화되어야 세계속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의 것을 찾을 수 있다.

이에따라 우리 연구소도 상반기에 세계속의 연구소가 되기 위해 금년 5월 26일에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Lloyd's Register of Shipping)로부터 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세계 선급협회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가 있는 로이드선급협회로 부터 선박용품의 화재와 관련된 시험시설 및 성능에 대해 IMO(국제해사기구)기준 뿐만 아니라 EN(유럽기준)의 시험소 운영 및 심사기준에 의한 시험품질관리능력을 국내 최초로 인정을 받으므로써 그동안 국내 조선기자재생산업체가 외국기관에 의존해야만했던 성적서 발급업무를 국내에서 대신 할 수 있어 외화가득률 등에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DNV(노르웨이선급) 등 국제적인 기관과의 인정을 확대 추진하여 자율화,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연구소는 산업발달에 따라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재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방재기술향상과 방화관련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고 보험산업의



김 명 수 / 기술지원부장

과학화를 위해 설립된 공인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화재보험요율서에 FILK(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인증품에 대한 요율할인을 시행(94. 8. 16)하게 되었다.

이제 국내보험산업의 과학화에 겨우 한발짝 다가간 것이며,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선진국보험제도와 같이 되기 위해 연구소는 아직도 개척해야 할 많은 분야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ISO/IEC지침서 25와 38(시험검사기관의 능력과 일반사항)과 같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국가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공진청 내에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기구를 신설하고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인정제도를 고시로 제정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국내산업의 선진화 및 품질향상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 연구소도 명실상부한 국내외적인 공인시험검사기관이 되기 위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열성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세계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일이 너무 많다.

옛부터 전래되는 “盡仁事待天命”은 세계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